

성경 예언 해설집 <24화>

예수

(지난호에 이어서)
 다니엘의 예언에서 넷째 짐승을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 하였고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기존 성경 학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이 짐승은 잔인 무도하여 먹고 부서트리고 발로 밟아 죽인다고 하였다.(단 7:7-8)
 그러므로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할 때는 폐허가 되고 이 백성(유대인)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라고 하였다.
 예수는 로마 군대가 몰려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광경을 눈 앞에 보는 듯이 말하였다.
 예수가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갈보리 산 상황장으로 끌려갈 때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의 죽는 것을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짐승의 날이 이르면 수대하지 못한 자와 젖 먹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우리를 죽게 하라 하리라. 푸른 나무(예수)에도 비참한 죽음이 있거든 마른 나무(죄인)들의 당하는 죽음의 형벌은 더욱 참혹할 것”이라 말하였다.(눅 23:28-32)
 예수의 예언대로 로마군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아이 벤 여인들을 창으로 베를 찔러 죽이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찔러 죽이고 땅에 매쳐 죽였으니 형식적이거나 재판 과정을 거쳐 죽는 자신의 죽음은 안락사(安樂死)로 표현하였

(눅 21:20-24)
 이스라엘의 전통 사상은 무자(無子)한 여인은 저주받은 자로 인정하여 수태 못하는 여자는 평생 수치심과 탄식으로 살았다. 무자한 여인들이 환란을 당하여 급하게 피난갈 때 홀몸으로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게 되어 아이 낳아 보지 못한 자신이 복된 것을 알게 되었다.
 로마군의 횡포로 유대인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하였다. 환란 직후 천지가 진동하고 인자(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강조하면서 “천지는 폐하여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온다는 소식이 없는 것은 예수의 부활 승천 재림은 영원히 없는 것이다.
 다니엘서와 복음서의 본문을 독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삼 상고하면 예수의 예언은 먼 장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떠난 직후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에 복종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1세기 후반에 로마군에게 대항살을 당하는 것을 미리 말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본문의 기록은 분명히 유대 땅에 국한된 환란인데 1천9백년 전 과거 사건이다. 지나간 환란을 잠자 다가오는 전 세계적인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하는 자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재림을 전제로 하는 해석이니 예수의 말을 잘못 전하는 것이다.
 예수가 다니엘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을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증거하였으니 다니엘의 예언대로 응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짐승인 로마에게 죽음을 당한 후 짐승이 환란을 일으켜 성도의 권

세가 깨어지고 한때 두때 반때(3년 반)을 지나 '똥 돌'인 예수가 재림하여 온 천하가 성도의 나라로 되어야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다.(단 9장 참조)
 성경을 신봉하는 신도들이 각성하여 총명한 눈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발견하여야 될 것이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한 것은 모형(模型)이요 원형(原形)이 아니다. 또한 성경은 가본(假本)이요 진본(眞本)은 아니다.
 붉은 용 마귀가 유대인을 말살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천년이 지난 후 한반도에서 그림자가 아닌 본체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짐승이라 표현된 제정(帝政) 로마는 그림자 격으로 예수 전후 시대에 활동하였고 진짜 짐승은 말세에 등장하는 잔인무도한 공산당이요 공산당이 짐승의 본체이다. 요한의 글에서 증명하는 것은 끝날에 두 짐승, 즉 정권(政權)과 교권(敎權)이 야합하여(계 17장) 하나님과 싸우다가 망한다는 것이다.
 첫째 짐승 공산당이 등장하였으나 한반도 천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50년간 발악하다가 뿌리까지 뽑힌 상태가 된 것은 승리자가 악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이다.
 둘째 짐승 교권이 참 그리스도의 진리를 꺾으려고 대항하고 있으나 거짓 그리스도, 비전리는 점차 소멸될 것이다.
 다니엘과 스가랴와 요한의 글을 재조명(再照明)하여 메시아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미가엘 또는 흰 옷 입

고 강물 위에 서있어 하나님의 소식을 증거하고(단 12장), 스가랴와 요한은 구세주를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모신 자로 짐승과 싸워 이길 것을 말하였다.(속 4장, 계 11장)
 예수는 자기가 사망자로 착각하고 그 세대에 짐승이 등장하고 7년 환란이 연속되고 자기가 다시 올 것을 말하였으나 예수의 말이 실현되지 못하고 부도(不渡)가 난 것은 그는 사망을 이긴 승리자가 아니었다. 다니엘이 말한 '남은 1주(7일)'는 구원자가 역사하는 기간이니 7수는 완성의 수로 육적 날수로 계산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다.
예수 재림의 예언(I)
 본문(요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설
 본문을 읽으면 예수의 말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땅에 건물을 짓듯이 집을 짓는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늘나라에 사는 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준비가 될 것인데 구하여 예수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할 필요가 없고 있을 곳을 준비하기가 얼마나 시일이 필요해서 2천년이 가감도록 준비를 못하였을까? “예비하면 즉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같이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니 누가 그 말을 믿으며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

겠는가. 제자들은 선생의 말을 믿는고로 자기들 생전에 예수가 다시 올 것을 확신하였다. 예수가 하늘에 살아있다면 자기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 사는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왜 오지 못하고 지연되는 지 사유를 전달할 것이다.
 예수교 신자들은 지금보다 초창기에 더욱 예수 오기를 갈망하였다.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만 기다리고 값없이 형제들에게 얻어 먹으면 서 폐를 끼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고 하였고 예수가 온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멸망의 사람, 미운 물건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예수가 강림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살후 2장)
 예수교 2천년 역사에서 예수의 재림 소동은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수없이 발생하여 예수교 신도들이 피해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국 땅에도 예수교가 들어온 이후 크고 작은 예수 재림의 소동이 일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의 휴거를 주장한 이장림 목사를 추종하는 자들의 광란 사건은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수 재림의 예언(II)
 본문(마 10:23)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나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人子)가 다시 오리라.
해설

위의 말씀은 예수가 미운 물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성도의 환란이 극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극한 지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면서 환란 기간은 길지 않고 짧은 기간이니 이 동리에서 쫓아내면 저 동리로 피난하면서 자기가 곧 다시 오리니 너희가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기 전에 온다고 약속하였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니엘의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성도의 환란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임을 두고 말한 것이다. 환란 기간이 짧을지라도 미운 물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고 학대받으므로 인간 사회에서 추방당하여 산과 동굴에서 숨어살다가 발견되면 그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다가 또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나 피난할 동리가 더 있을지라도 여러 곳으로 다니지 못하여 예수가 다시 오므로 고난은 끝이 나고 공중으로 승천하여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다고 하였다.
 환란이 극심하므로 육체를 가진 자로서 환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예수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여자가 고통이 심한고로 화가 있다고 하였다. 초기 예수의 제자들은 당시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고 유대교를 비롯한 이교(異敎)들이 박해하므로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하였다.
 사도 바울의 서신 내용도 순교 정신이 없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바울도 수차 옥중 생활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하였다.(히 11:35-40 참조)*
 - 다음호에 계속 -

차승도

기와는 지중해 연안국에서 동양으로, 와당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1면에 이어서
가장 오래된 S자형 기와 기원전 1600년 경 그리스 레르나 지방에서 발견돼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의 남쪽에 있는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는, 기원전 1600년경 크레타 문명을 받아들면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미케네 문명 시대로 연대기를 확정할 수 있었으나, 그 기와의 제작자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어떤 외국의 상인이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그리고 고대 S자형 기와 담장 주변에 이집트에서 유입된 주저용 식기류와 숭가락 등이 함께 발견된다는 점이다.
고조선의 초기에는 도피성에서만 원형 와당을 사용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
http://www.greeceathenssaeaninfo.com/p_argolida_ancient_lerna2.htm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던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도피성이라는 구별된 성읍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한반도에 도착한 이스라엘 단지와 민족도 천제를 지내는 곳에 제사장들만 살게 하고 일반 사람의 출입을 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풍습이 후대에 전해져 삼한

시대에는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지역을 소도(蘇塗)라고 하였다.
 고조선의 초기에는 도피성 안에 천제단의 담장과 제사장이 거하는 신전 지붕에만 원형와당(圓形瓦當)을 특별히 장만하여 사용하였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는 반달 모양의 반와당(半瓦當)을 허용하였다. 그래서 고조선에서 중국 주(周)나라에 처음으로 전래된 와당은 반와당이었다. 마찬가지로 반와당은 중국 춘추시대에 고조선과 국경을 마주하는 연나라로 전래되고 또한 고조선의 황해(黃海) 건너편에 있는 제(齊)나라에도 전래되었다.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암기와 & 원형와당(圓形瓦當) 직경 17.4cm, 국립중앙박물관 이우치이시오 기증실

이렇게 지붕에 기와와 와당으로 장식한 기와집이 연나라와 제나라에 전래되었는데, 연나라는 도철문 와당이 유행하였고 제나라는 수목문 와당이 유행하였다. 춘추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秦)나라에도 고조선의 원형와당이 전래되었는데, 진나라는 동물문 와

당이 유행하였다.
 ※ 중국 최초의 기와는 주(周)나라 말 연(燕)의 하도(下鄣)인 역현(易縣) 또는 제(齊)의 국도인 임치(臨淄) 등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나 이곳에서는 반원형의 와당을 포함한 많은 기와의 발견이 보고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와당(瓦當))]*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50>

석가모니의 진실고백(眞實告白) - 4
 제8 : 의지해야 할 법이 나온다
 의법출생분(依法出生分) 第8
 若復有人於此經中 受持乃至四句偈等 爲他人說 其福勝彼
 악부유인어차경중 수지내지사구계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만약에 또 사람이 있어서 이 경(金剛經) 가운데에 사구계(四句偈)를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그 복이 세계에 가득찬 보배를 보시한 사람보다도 더 복과 덕이 큰 것이다.

석가모니는 금강경에 제자인 수보리를 통해 현재의 불교계에 아무리 많은 보시공품을 내어도 덕과 복이 없다고 하는 뜻이다.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50>

그러나 금강경 사구계를 올바르게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을 해준다면 아무리 많은 보시공품을 낸 사람보다 복과 덕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구와 뜻이 맞는 불경을 찾아보니 대반열반경 6권에 네가지에 의지하라는 사의품에 글이 있어 살펴보자.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육권(六卷)
 사의품 제8(四依品 第8)

有知法者 若老若少 故應供養 恭敬禮拜 猶如火火 婆羅門等
 유지법자 약노약소 고응공양 공경예배 유여사화 바라문등
 有知法者 若老若少 故應供養 恭敬禮拜 亦如諸天 奉事帝釋
 유지법자 약노약소 고응공양 공경예배 여여제천 봉사제석

바른 법을 가진 이를 알거든 늙거나 젊거나 반드시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 하기를 마치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과 같이하고 바른 법을 가진 이를 알거든 늙거나 젊거나 반드시 공양하고 공경하며 예배하기를 또한 모든 하늘이 제석을 섬기는 것과 같이하라.

[해석] 바른 법(正法)이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며 이는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고통인 죽음에서 벗어나 만물이 모두 하나로 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윗글은 석가모니가 열반경(般涅槃經六卷第八)에 이야기한 불경 구절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섭이 석가모니에게 대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석가모니가 한 말을 보면,

佛告迦葉, 善男子, 我爲未來諸菩薩等學大乘者, 說如是偈, 不爲聲聞弟子說也. 불고가섭, 선남자, 아유타미래제보살등학대승자, 설여사계, 부유성문제자설야,

부처께서 가섭에게 이르길 “내가 미래에 대승을 배우는 모든 보살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이지 성문(성존)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가섭이 항의하자, 석가모니는 “너희는 차-야 말었구나..” 했으니, 미래에 사람들을 위해 섰다고 하면서 석존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말을 끊은 것을 보면, 무아(無我)에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명鍾